

한화케미칼, PVC·LDPE 부진하다!

KDB투자증권, 중국수요 부진으로 ... 2/4분기 영업이익 577억원 불과

한화케미칼은 2011년 4/4분기를 바닥으로 영업실적이 나아지겠지만 개선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KDB대우증권이 5월24일 주장했다.

KDB투자증권은 한화케미칼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<중립>을 제시했다.

박연주 연구원은 “한화케미칼은 중국수요 부진으로 PVC(Polyvinyl Chloride)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, 중국의 부동산 규제와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 등으로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”이라며 “LDPE(Low-Density Polyethylene) 부문도 중국수요 부진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

또 “한화케미칼은 1/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21억원으로 2011년 4/4분기와 비교해 개선됐지만 수익률이 계속 낮았다”며 “2/4분기 영업이익은 577억원으로 제한적으로 개선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24>